

행정처분에 골병 드는 중소기업건설사

회수 가능한 공사대금 채권도 부실자산으로 매도

회수 가능한 공사대금 채권을 부실 자산으로 간주해 건설업 등록을 말소한 행정처분은 잘못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충분히 돌려받을 수 있는 공사대금을 부실자산으로 보고 지역 소재 A건설사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한 전북도의 처분을 취소했다.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르면 건축 공사업을 영위하는 건설업체는 상시 자본금 5억원 이상을 갖춰야 하며 이를 3년 이내 2회 위반하면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 건설업체의 자본금을 평가하는 기준인 건설업체 기업신용지침을 보면, 법원 판결 등에 의해 금액이 확정됐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 공사 미수금 채권의 경우 제공된 담보물을 통

해 회수가 가능한 금액이면 실질자산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군산 소재 A사는 지난 2008년과 2011년 모회사로부터 총 37억원 규모의 공장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완공후 인도했으나, 공사대금 12억6000여만원을 지급받지 못했다. A사는 결국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고 공사대금 지급명령 소송에서 승소했다.

A사는 이에따라 해당 공장 건물내 직원을 상주시키는 등 유치권을 행사하며 법원으로부터 유치권 존재 확인까지 받아 놓았다. 대금 회수가 가능한 법적 지위를 획득한 것이다. 유치권은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다.

하지만 주무관청인 전북도는 이를 외면했다.

전북도는 A사가 받지 못한 12억6000여만원을 부실자산으로 보고 실질자산 등급이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한다고 간주하고 지난해 9월 A사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 처분했다.

공사대금도 제대로 받지 못해 어려움에 처했던 A사는 결국 지리한 소송에 이어 이번에는 행정심판까지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중앙행정심위는 이에 대해 A사가 갖는 공사대금 채권은 민법상 유치권에 의해 담보채 회수가 가능한 채권으로 인정되며 전북도가 해당 업체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한 것은 관련 법령을 잘못 해석한 것이라며 이를 취소했다.

중앙행정심위 관계자는 "건설업체의 자산평가 등 전문분야에서 종종 행정기관의 법리 오해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며 "이처럼 부당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심판제도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업계는 이에 대해 일부 법리 해석상 오류로 볼 수 있지만, 행정편의주의적 '불통' 관행과 '갑들이기'식 처분 등이 가장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은 공사대금 회수 관련 유치권조차 인정하지 않는다면, 주기적이고 등 건설업관리규정을 무시한채 일단 행정처분부터 내리고 나서 근거 조사를 하겠다는 식의 태도도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관계자는 "A사 처럼 공사대금도 제대로 받지 못해 어려움을 처한 업체를 지원해도 모자랄 판에, 부당한 처분으로 수개월간 영업조차 할 수 없게 만드는게 지역경제 활성화이고 고용창출이나"며 "개발사안에 대한 판결이나 결정도 중요하지만, 행정처분이라는 강제력을 앞세운 갑질과 불공정 관행전반을 해소하는 게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재용 기자

농촌진흥청, 조기출하용 찰벼 개발

병해에 강하고 수량성이 높아... 윤일찰·운백찰 품종

농촌진흥청은 병해에 강하고 수량성이 높은 조기출하용 찰벼 '윤일찰'과 '운백찰'을 개발했다.

찰벼는 주로 찰밥과 떡용으로 이용돼 왔으며, 술, 고추장, 유과, 강정 등을 만드는 원료곡으로 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다양한 품종개발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윤일찰'과 '운백찰'의 출수기는 보통기 보비재배에서 오대벼와 비슷한 7월 27일경인 조생종 찰벼이다.

중·북부평야, 중산간지 및 남부 고랭지에서 5월 20일 모내기했을 때 이삭 패는 시기가 7월 27일경으로 오대벼와 비슷하며 9월 10일경이면 수확이 가능해 조기출하용으로 유망한 품종이다.

쌀 수량성은 윤일찰 533kg/10a, 운백찰 544kg/10a로 메벼인 오대보

다 높고 쓰러짐에 강하며 재배 안정성이 높다.

벼 키는 65cm 내외이며, 벼흰잎마름병(K1~K3)과 도열병에 강하나 줄무늬잎마름병에 약하므로 평야지 재배 시 방제를 철저히 해야 한다.

윤일찰과 운백찰은 새 품종이용 촉진사업과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 종자생산 단계를 거쳐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농가에 보급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김보경 작물유통과장은 "조기 출하가 가능한 윤일찰·운백찰이 보급되면 쌀 출하 시기가 분산돼 쌀 가격 하락 방지가 가능"이라며, "찰벼 품종을 이용한 다양한 쌀 가공품 개발이 가능"이라고 말했다.

/안재용 기자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신규 주관기관 선정

한국탄소융합 기술원·전북창조경제 혁신센터

전북중소기업청은 올해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을 전담수행할 주관기관으로 (재)한국탄소융합기술원과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를 선정했다.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은 창업 후 3~7년차 기업의 시장진입 및 성장축진을 집중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사업이다.

전국에서 신청한 총 50개 기관중 창업도약기 지원을 위한 최고의 역량과 인프라를 갖춘 기관을 선별하기 위해, 신청기관의 투자역량은 물론, 유통망, 글로벌 진출지원 등 지원 프로그램의

우수성, 신성장동력 분야 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기관별 특성화된 역량 등에 대해 3단계 심층 평가과정을 거쳤다. 총 50개 신청기관 중 '투자 + 보육 + 글로벌 역량' 등을 겸비한 전문기관을 엄선해 전북지역 2곳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21개기관을 최종 선정했다.

특히, 전북지역의 경우 열악한 창업 및 투자 인프라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에 한발 앞서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대응해 당초 예정(1개기관)보다 많은 2개 기관이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이번에 새롭게 선정된 주관기관에는 창업기업 사업화 자금, 공통 지원프로그램 지원 등 창업기업 발굴,육성 및 주관기관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이 집중 지원된다.

각 주관기관들은 오는 4월까지 창업지원 전담조직 설치, 기관별 특화분야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창업기업 모집 및 선정절차를 거쳐, 5월부터 사업화 자금 지원과 함께 유통,글로벌,제품개신,기업공개 및 성장축진을 위한 '5대 선도와 아카데미' 등을 운영할 계획이

다.

또한, 주관기관별로 '일스톱 창업상담창구'를 설치해 창업기업의 애로사항도 상시 지원하게 된다.

전북중기청 정원탁 청장은 "도약단계 창업기업의 '죽음의 계곡' 극복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지원으로, 도약기 기업의 생존률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과 매출 증대, 투자유치 확대 등 가시적 성과 창출이 기대된다"며 "도내 우수 창업기업 100개를 발굴해 집중 지원하고, R&D 등을 추가로 연계지원해, 향후 전북지역을 이끌 선도기업으로 육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에 신규 선정된 주관기관을 통해 지원할 창업기업의 모집공고는 3월중에 공고할 예정으로,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를 통해 신청받을 예정이다.

/안재용 기자



전북농협 강태호 본부장, AI방역 소독시설 방문

전북농협 강태호 본부장은 8일 익산시 구제역·AI방역 거점소독시설을 방문해 24시간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방역소초 근무자들을 격려하고 위문품을 전달했다.

전북농협은 지역본부, 시군지부를 포함한 관련 사업장의 구제역, AI방역 대책상황실을 주말과 휴일을 포함한 24시간 근무체제로 전환해 기동 중이

며, 시군 행정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방역 구역을 선정하고 축협 공동방제단 차량 및 농협보유 광역 살포기를 활용한 방역활동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방역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집중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안재용 기자

JB카드 새봄맞이 이벤트 4월 30일까지 진행

전북은행은 8일부터 4월 30일 까지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JB카드 새봄맞이 이벤트'를 진행한다.

JB개인카드 고객은 전북은행 홈페이지에서 이벤트 응모를 통해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 가구, 학원, 의류업종 가맹점에서 건별 5만원이상 결제시 최대 2만원까지 캐시백 받을 수 있다.

소셜커머스 위메프 이용시 캐시백을 해주는 이벤트도 눈길을 끈다. 별도의 응모 조건 없이 건별 3만원이상 이용

하면 고객별 1일 3,000원까지 캐시백의 혜택이 주어진다.

가전 제품 구입을 앞둔 이들은 도내 하이마트에서 100만원 이상 이용시 5만원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캐시백 이벤트에 주목하는 것도 좋겠다.

행사 참가자들에게는 라이나 냄비 2종세트가 현장에서 추가로 증정되며, 최대 12개월까지 부분 무이자할부가 제공된다. 이벤트의 참여 방법 및 자세한 내용은 전북은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재용 기자

전주김제완주축협, 정기총회 개최

전주김제완주축협은 지난 7일 참예 우명품관 대회의실에서 제14기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기총회는 비상임이사, 비상임감사, 사외이사를 선출하는 선거까지 겹쳐 주변의 이목이 집중됐다.

또한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각 분야 우수조합원에 대한 감사패, 공로패 전달식 및 우수 직원에 대한 시상식을 진행했고, 감창수 조합장의 성원보고

에 이어 결산감사보고, 2016년도 결산 및 사업계획변경안 등을 심의 의결, 사외이사, 비상임감사, 비상임이사 순의 선거를 실시했다.

김창수 조합장은 "우리 조합이 있게 된 데에는 조합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으로 늘 함께해준 덕분"이라며, "직원 교육을 통해 조합원과 하나되는 축협을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구독문의 288-9700

한국농어촌공사 전북본부, 가뭄대비 수계점검 실시

한국농어촌공사 전북본부는 봄 가뭄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8일 남원지사의 신재생에너지개발사업 현장인 동화소수력발전소를 찾아 가뭄대비 수계점검을 실시했다.

기상청 자료에 의하면, 3개월 강우량이 평년(223mm)과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수계점검을 통

해 동화댐 농업용수 저수상환과 연간 용수 공급 계획을 사전 점검하기 위해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현재, 전북에 소재한 공사관리 418개 저수지 저수율이 76.6%로 평년대비 2.0%가 적은 상태지만, 무강우시에도 농업용수 공급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나타났다.

/안재용 기자

우리동네 무인주차장 어디에 있을까?

주차하고 구경하고
무인주차장에 주차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편리합니다.



[전주시 무인주차장 안내]

- 서부신시가지 도청영**
전주시 완산구 흥산북로 75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노송천 주차장**
전주시 노송여울2길 108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서부신시가지 농협중앙회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북로 5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서부신시가지 다은병원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2길 5-12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서부신시가지 KB은행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1길 4-1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덕진광장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덕진광장로 3
(239-2562)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실내체육관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권삼덕로 308
(251-1264)
(연중무휴) 4,000원 기본(30분):500원, 추가(15분):250원